

그래핀·LED, 100대 유망 연구분야

교과부, 화학·화공 소재 부문 17개 과제 ... 물리영역은 10개 선정

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기초연구사업 분야로 꿈의 소재로 불리는 그래핀과 LED(Light Emitting Diode) 등을 선정했다.

교육과학기술부는 한정된 기초 연구개발(R&D)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한국이 주도할 수 있고, 성장이 기대되는 100대 미래 유망분야를 선정했다고 5월17일 발표했다.

논문 분석과 전문가 추천 등을 통해 1차 후보 278개를 추리고, 이공계 전문가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100개의 과제를 골랐다.

물리 영역에서는 2010년 노벨물리학상 수상 주제인 그래핀(한 겹의 탄소로 이루어진 나노물질)을 비롯해 초전도 신소재, 메타물질(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리적 성질을 띠도록 고안된 물질) 등 10개 과제가 선정됐다.

화학·화공·소재 부문에서는 차세대 반도체, 고효율 LED 17개가, 생명과학·의약학에서 줄기세포 등 32개, 전기전자에서 지능형 로봇 등 8개 과제가 유망 분야로 꼽혔다.

수학에서는 암호학 등 4개, 지구과학은우 자연재해 발생원리 등 5개 분야가 포함됐다.

정보통신 유망분야는 브레인 컴퓨팅(뇌신경망 원리를 응용한 고성능 컴퓨팅 기술), 무인자동차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9개였고, 건설·교통은 에너지 절약 평가모델 등 4개, 기계에서는 인체 착용 로봇 등 11개가 100대 분야에 들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05/18>